

미국의 산업의학전문의

신 동 천

벌써 지난해가 되어버린 1990년 JOM(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0월호에 Dr. Pransky가 기고한 논문은 미국 산업의학전문의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Dr. Pransky는 미국 예방의학분야중 산업의학전문의로 등록되어 있는 1056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을 보내어 71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들중 154명은 이미 사망하였거나 은퇴하였고 23명은 산업의학이 아닌 다른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533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의학분야에 전임(full time)으로 일하는 의사의 수가 413명이었고 주당 21시간 이상을 할애하여 산업의학활동을 하는 의사의 수도 47명이었으며 나머지 73명은 주당 20시간 미만이었다.

다른 의학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겸하고 있는 상태를 조사한 결과 내과가 가장 많아 126명(23.6%)이었고 가정의가 51명(9.6%), 예방의학이 49명(9.2%)이었으며 이외 소아과, 외과, 정신과, 방사선과, 응급의학, 마취과, 피부과도 소수 있었다. 타분야의 전문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경우가 약 51%로 271명이었다.

분석대상자 53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기업체가 가장 많았고(199명 37.3%), 교육기관, 정부기관이 각각 92명과 87명이었으며 개인의원이나 병원과 연계되어 일하는 의사의 수도 81명이나 되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과거에 산업의학전문을 취득한 의사들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경향이 있었고, 근래에 배출된 전문의(1981년 이후)일수록 기업체근무는 줄어들었으며 병의원, 교육기관, 정부기관의 근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에 전문의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정부기관의 현직근무도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산업의학전문의를 포함하여 현재 약 650명이 미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리라 추계하였고, 이 수치는 1986년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수를 600명 정도라고 미국의학협회에서 추산한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산업의학전문의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1980년 '졸업후 의학교육 국가자문위원회의 예방의학전문위원회'에서는 1990년까지 미국내에서 2300~3900명의 산업의학전문의가 필요하리라고 예측한 바 있으나 1989년까지 예방의학전문의로 등록된 의사가 1400명 밖에 되지않아 전문의 인력 수급의 커다란 부족현상을 매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산업의학전문의의 근무기관이 1981년 이후의 전문의 취득자에서 보듯이 교육기관과 정부, 기업체 뿐만 아니라 병원과 연계되거나 개인의원을 개설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어떤 경우는 산업보건에 관한 자문회사의 형태로 활동하기도 하여 다양화되는 현상을 볼수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의 근무가 적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학전문의의 교육과정은 임상교육, 역학, 독성학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 임상가, 자문역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이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다.